NEWS
방송계 동향

국내 개발 10.2 채널 오디오 기술, ITU 국제표준으로 채택

국내에서 개발된 10.2 채널 오디오 기술이 ITU의 차세대 방송을 위한 8개의 오디오 기술 표준 중 하나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지난 2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밝혔다. 이번 10.2 채널 오디오 기술은 UHDTV 등 방송 콘텐츠 특성에 대한 오디오 신호 요구사항과 제작을 위한 스피커 레이아웃을 정의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UHDTV 방송 표준 개발" 과제로 ETRI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하였다. 또한, 이미 HDMI 2.0 표준에도 포함되었고, ABU에서 UHDTV 방송 서비스를 위한 표준으로도 제정된 바 있어, 앞으로 세계 오디오 시장을 국내 기업이 재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소리바다와 pooq 음악서비스 사업 시작

pooq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상파 N-스크린 서비스 플랫폼인 pooq을 운영 중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소리바다와 서비스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pooq 서비스 이용자들은 지상파 시청에 더해 다양한 음원을 들을 수 있에 되었다.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이번 서비스는 일정이 조율 되는대로 곧 런칭될 예정이다.

OBS

OBS 기술국 워크숍 개최

지난 2월 14일 OBS 기술국 협회원들은 화합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강화도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근무와 환절기로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소주한잔에 평상시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2014년 새해의 첫 모임을 개최하였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OBETA, KOBA 2014 준비 착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KOBA 2014 준비에 한창이다.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와 KOBA 데일리 등 KOBA 전반적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준비 중인데, 컨퍼런스는 더욱 심도 있는 강의와 스케줄로 구성될 예정이며, KOBA WORLD FORUM은 작년에 이어 방송기술의 핵심 이슈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ABU, EBU, NAB 의장 등 세계 주요 방송연합단체장을 초청하여 방송의 '미래 전망과 방송플랫폼'을 주제로 하는 '미래방송포럼' 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로써 KOBA는 방송기술 및 관련 정책 전반을 포함하는 국제 전시회로 보다 영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SBS

SBS, 세계 최초로 3D 드라마 '강구이야기'제작

SBS가 세계 최초로 3D 드라마를 선보인다. 3월 중 방송예정인 2부작 드라마 <강구이야기>로, 영덕 강구항을 배경으로 운명적이고 애틋한 사랑을 펼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는다. 이동욱과 박주미가 남녀주인공에 캐스팅되었고, <미남이시네요>, <드라마의 제왕>의 홍성창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2013년 SBS 극본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백미경 작가가 집필한다.

YTN

YTN 신사옥 준공식 열어

YTN은 지난 1월 말 상암동 신사옥 1층 미디어홀에서 YTN 신사옥 준공식을 열었다. 각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어 YTN 신사옥 시대의 개막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KBS

KBS TV기술국 E-SMR 개소

2월 13일 KBS별관에 위치한 E-SMR이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소하였다. E-SMR은 Edit & Sound Mastering Room의 줄임말로 후반 편집과 사운드 마스터링이 한 곳에서 이뤄지고, 또한 송출까지 파일로 전송되는 Full 파일기반 편집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KBS는 이번 E-SMR 개소를 통해서 드라마 후반제작을 위한 최적의 제작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제작자는 고품질의 드라마를 제작부터 송출까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시청자에게는 좀 더 깨끗한 영상과 소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BS

EBS '테마기행' '한국기행' 진행자에 일반인 모집

EBS가 올해 방송의 키워드로 '참여'를 택해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한다. EBS는 17일 '2014 EBS 봄 편성 설명회'를 열고 "공급자 중심의 방송에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BS는 먼저 '세계테마기행'과 '한국기행'의 진행자(프레젠터) 일부를 기존 전문가가 아닌 시청자 가운데에서도 공개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또 EBS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학부모 리포터'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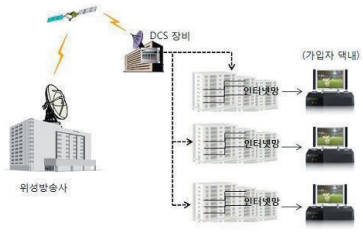
강릉-삼척 MBC 합병 절차 밟아

강릉 MBC와 삼척 MBC가 합병된다. 이에 2월 13일 MBC는 이사회를 열고 강릉 MBC와 삼척 MBC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강릉 MBC : 삼척 MBC = 1:0.297이며 합병 시기는 2014년 6월 30일로 정해졌다. 노사의 자발적 동의로 진행된 이번 합병에서는 강릉 MBC가 삼척 MBC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합병 후 MBC 영동(가칭)으로 불릴 전망이다.

강릉 MBC
삼척 MBC

KT스카이라이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Ktskylife's DCS



지난 2013년 8월 제정되어 올해 2월 14일 시행되는 ICT 진흥 특별법에 의하여 그동안 영업이 정지되었던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사실상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런 특별법에 의해 DCS 사업 신청서를 미래부에 제출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임시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DCS가 위성과 IP의 융합서비스가 확실한 만큼 특별법의 취지대로 승인 허가될 전망이다.

CBS

60주년 CBS, 최초의 <전국 간부 워크샵> 개최

60주년을 맞은 CBS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국 간부 워크샵>을 개최하고, CBS의 개혁 과제 해결과 미래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창사 60주년을 맞아 외부적 미디어 환경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 마련과 60년을 이어온 내부 인사 제도 개선의 과제를 함께 안고 있는 CBS에게, 대안 수립과 개혁 실천을 동시에 주도할 간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4 CBS 전국 간부 워크샵>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105명에 달하는 전국 CBS의 간부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아TV, 미국 DIRECTV 론칭

아리랑TV가 한국 방송사 중 최초로 미국 DIRECTV의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한국시각으로 2월 20일(목) 밤 8시(LA현지시각으로 20일 새벽 3시)부터 미국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아리랑TV는 DIRECTV(채널번호 2095)의 공익채널 진출로 인하여, HD 방송수신이 가능한 DIRECTV 2,000만 가입가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시청가구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